

선수촌 찾은 장미란 문체부 차관에... “언니” 부르며 함박웃음

“훈련에 방해될까봐 말도 못 걸겠다” 선수 배려

태권도장서 신발 벗어...역도 대표들 “언니” 외쳐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인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촌 생활을 익히 아는 장 차관은 선수들의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워하는 기색도 내비쳤다. 국가대표 후배인 선수들은 장 차관의 방문을 이례적으로 환영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장 차관은 16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9월 23일)을 한 달여 앞두고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장 차관이 진천 선수촌을 찾은 것은 2008년 12월 기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본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선수촌 내 행정센터를 나선 장 차관은 가장 먼저 수영장을 찾았다. 이정훈 수영경영대표팀 총감독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장 차관은 김우민, 이호준 등 선수들과 인사를 나눴다. 선수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수영 대표팀 베테랑 김서영과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최근 뱀소니 의심사고에 휘말렸던 황선우는 훈련에 집중했다.

선수 시절 고위 인사 방문을 경험했던 장 차

관은 선수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장 차관은 “선수 때 누가 온다고 그러면 훈련에 방해될까 봐(걱정했다)”라며 “가서 보고 말도 걸고 싶고 그런데 방해될까 봐 못 걸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장애인 진천 선수촌장과 대화를 나누며 추억에 젖기도 했다. 수영장에서 태권도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장 차관은 태권도 선수촌 식당 직원이 이곳에서도 일하는지 물었다.

장 차관이 “태릉 식당에 계셨던 아주머니들은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라고 묻자 장 차관은 “한 여사분이 태릉에 있을 때 막내였던 본인데 지금은 최고참”이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또 “태릉에서는 비가 오다가도 새벽 운동시간이 되면 비가 그쳤다”며 옛일을 떠올렸다.

태권도장에 도착한 장 차관은 신발을 벗고 훈련장에 들어섰다. 장 차관은 선수들을 향해 “역도장과 태권도장이 멀지 않아서 밖에서만 봤는데 오늘 훈련시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좀 새롭다”며 “아무튼 준비 잘해서 목표한 바 잘 이루길 바라겠다”고 격려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알고 지낸 한진선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가장 큰 박수가 나온 훈련장은 역시 역도장

이었다. 김수현은 장 차관에게 “언니, 사인해주세요”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훈련장을 둘러본 장 차관은 “저도 운동복을 좀 갖고 올걸 그랬나봐요”라며 “백스쿼트도 하고 용상도 좀 해볼 걸 그랬나보다”라고 언급했다.

역도 후배 선수들과 악수도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원래 예정보다 미뤄져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데 차질이 있었을 텐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불리한 것 생각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 해달라”며 “준비시간이 길었으니까 좋았던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부상 입지 않고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기록을 잘 달성하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다음 방문 장소인 배드민턴장에서 장 차관은 선수들의 부상을 걱정했다. 그는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상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며 “긴장이 살짝 풀어졌을 때 부상이 예기치 않을 때 오는 것이기에 때문에 항상 몸 풀 때, 또 운동하고 나서 쿨다운할 때 신경 써서 잘해달라”고 조언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경쟁에서 탈락한 김소영과 여자단식 세계 1위에 등극한 안세영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선수촌 방문을 마친 장 차관은 “1주일에 두 세 번은 밤에 (역도)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도장은 새롭지 않아서 익숙했다”며 “정말 운동복 갖고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운동해 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 훈련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격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 방해되던 안 되니까 좋았다”고 말했다.

또 “사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갔다오고 나서 은퇴 후 진천선수촌은 오늘 처음 와봤다. 시설도 태릉선수촌과 매우 다르고 선수들도 많이 달라져 있다”며 “그런데 선수 때 지도자였던 분들을 뵈어서 반갑다. 오늘 오기 전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더 마음이 새롭고 선수 때 생각도 난다”고 돌아섰다.

선수촌 기공식 당시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장 차관은 “베이징 올림픽 갔다오고 나서 12월에 진천선수촌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사

회를 보러 왔는데 너무 허허벌판이었다”며 “지금 이렇게 대단한 건물들이 있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진짜 새롭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선수들이 좋은 훈련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된다”며 “그런 역할을 선수와 지도자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뉴시스

네이마르, 사우디 알힐랄 이적...이적료 1315억원

PSG에서 뛰는 6시즌 동안 공식전 173경기 출전해 118골 터트리며 핵심 공격수로 활약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PSG)에서 뛰던 브라질 출신 슈퍼스타 네이마르의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이적이 공식 발표됐다.

알힐랄은 16일 “네이마르와 2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럽이나 미국 매체들은 이적료가 9000만 유로(약 1315억원)이라고 예상했다.

네이마르의 연봉에 대해 AP통신은 1억달

러(약 1335억원), 영국 BBC는 1억5000만 유로(2193억원)로 추정했다.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에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카림 벤제마(프랑스), 사디오 마네(세네갈)에 이어 네이마르까지 뛰게 됐다.

계약을 마친 네이마르는 알힐랄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럽에서 많은 타이틀을 일궈고,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도전하

며 스스로를 시험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프리시즌 친선전이 네이마르가 PSG에서 뛰 마지막 경기가 됐다.

2013년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입단해 유럽에 진출한 네이마르는 2017년 역대 최고 이적료인 2억2200만 유로(약 3200억원)에 PSG에 입단했다.

네이마르는 PSG에서 뛰는 6시즌 동안 공식전 173경기에 출전해 118골을 터트리며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다.

국가대표 이강인이 7월 PSG에 입단해 네이마르가 팀 동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강인이 PSG 유니폼을 입은 지 한 달 만에 팀을 떠났다.

네이마르가 입단한 알힐랄은 사우디 리그에서 통산 최다인 18차례 우승한 명문 구단이다.

알힐랄은 올해 6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올버햄튼에서 황희찬과 함께 뛰던 후배 네베스(포르투갈)도 이적료 784억원에 영입했다.

결국 네이마르와 이별한 이강인...이제 파트너는 음바페

이적 원했던 음바페, 긍정기류로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이강인(22)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뽐냈던 네이마르(31·브라질)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진출하면서 둘의 짧은 인연이 끝났다.

오려려 구단과 불화를 빚었던 킬리안 음바페(25·프랑스)가 잔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 분위기다.

사우디의 알힐랄 구단은 16일(한국시간) 네이마르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년. 이적료는 9000만 유로(약 1315억원)로 알려졌다. PSG도 구단을 대표하던 스타플레이어인 네이마르와 작별을 알렸다.

지난달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네이마르와의 호흡을 기대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공식전에서는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PSG-전북 현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 경기가 둘이 손발을 맞춘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다.

경기에 앞선 오프 트레이닝 때부터 네이마르는 9살 아래인 이강인을 친동생처럼 챙겼다. 항상 곁에서 장난을 걸고 대화를 나눴다.

이강인은 이날 네이마르의 이적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네이마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짧았지만 나에게겐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감사하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썼다.

이에 네이마르는 “함께 한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 속에 지리잡았다. 나중에 또 만나자. 아들”이라고 쓰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네이마르의 이적과 맞물려 앞서 계약약을 두고 PSG와 불협화음을 유지하던 음바



페는 최근 1군 훈련에 복귀했다. 줄곧 계약 대신 이적을 원했던 음바페가 구단과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

음바페는 지난 13일 로리앙과 리그1 1라운드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결과는 0-0 무승부였지만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82분을 소화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이강인이 찢러주는 패스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하는 장면을 기대해도 될 상황이다. PSG는 오는 20일 볼루즈와 2라운드를 치른다.

뉴시스



김하성, 2루타 포함 멀티히트...팀 대승에 기여

샌디에이고, 10-3으로 승리...3연패 탈출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멀티히트를 날리며 팀의 대승에 힘을 더했다.

김하성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볼티모어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김하성은 이날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지난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4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작성한 김하성은 시즌 타율은 0.283에서 0.285(390타수 111안타)로 끌어올렸다.

첫 타석부터 장타를 때려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우완 선발투수 잭 플래허티의 5구째 낮은 너클커브를 노려쳐 좌측선상으로 빠지는 2루타를 날렸다. 김하성의 시즌 18번째 2루타.

매니 마차도, 젠더 보가츠의 연속 볼넷으로 3루까지 나아간 김하성은 제이크 크로넨워스가 밀어내기 볼넷을 고르면서 홈을 밟았다.

김하성은 2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4회말 1사 후 세 번째 타석을 맞은 김하성은 절묘한 타격과 빠른 발로 내야안타를 만들어냈다.

상대 좌완 볼펜투수 니 베스피의 3구째 낮은 커브를 엉덩이를 빼며 걸어올랐다. 베스피가 머리 위로 향한 타구를 잡기 위해 글러브를 쪽 뻗었지만 잡지 못했다. 2루수 애덤 프레이저가 급히 달려가 타구를 잡았지만, 전력질주한 김하성은 1루를 통과한 뒤였다.

타이스 주니어의 중전 안타 때 2루로 나아갔던 김하성은 후안 소토가 병살타를 쳐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5회말 2사 2루의 찬스에서 2루 땅볼을 친 김하성은 선두타자로 나선 8회말 3루 땅볼로 돌아섰다. 샌디에이고는 장단 13안타를 몰아치면서 10-3으로 승리, 3연패를 끊었다.

권순우, US오픈 본선 예비명단 1순위로

오렐카·카레노 부스타 기권으로 3순위에서 1순위로

한국 남자테니스 간판 권순우(107위·당진시청)가 부상 복귀 무대인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US오픈 테니스대회를 주최하는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단식 본선 출전 명단에 포함됐던 라일리 오렐카(미국)가 부상으로 기권을 선언했다고 16일(한국시간) 전했다.

전날에는 역시 본선 출전 예정이던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124위·스페인)가 기권했다.

이에 따라 본선 예비명단 3순위였던 권순우는 1순위가 되게 됐다.

현재 본선 출전 명단에 포함된 선수 중 1명

만 더 기권하면 권순우는 예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선에 나선다.

권순우는 지난 2월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카타르 엑스 모바일 오픈을 마친 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검사 결과 염증 진단을 받았다.

대회에 나서지 않고 어깨 부상 회복에 매달린 권순우는 US오픈을 복귀전으로 점찍었다.

오렐카는 지난해 8월 ATP 투어 워싱턴 오픈 뒤 고관절을 포함해 여러 부상에 시달려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US오픈 출전도 2년 연속 불발됐다.